

# 원성왕[元聖王]

## 신라 하대의 실질적인 개창자

미상 ~ 798년(원성왕 14)



경주 원성왕릉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원성왕은 신라 제38대 왕이다. 무열왕(武烈王)계 김주원(金周元)과의 왕위계승 경쟁에서 이기고 왕위에 올랐다. 이후 120여 년 간 신라의 왕위계승이 원성왕의 가계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원성왕계'를 형성했다. 뿐만 아니라 왕실가족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신라 하대 권력구조의 특징들이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때문에 원성왕은 신라 하대의 실질적인 개창자로 평가받고 있다.

### 2 원성왕의 가계

원성왕의 성은 김(金), 이름은 경신(敬信, 敬慎), 시호는 원성(元聖)이다. 785년부터 798년까지 14년간 신라를 통치했다. 원성왕은 내물마립간(奈勿麻立干)의 12세손으로, 아버지는 일길찬(一吉澹) 김효양(金孝讓)인데, 원성왕 즉위 후에 명덕대왕(明德大王)으로 추존되었다. 그리고 조부 김위문(金魏文)은 흥평대왕(興平大王)으로, 증조부 김의관(金義寬)은 신영대왕(神英大王)으로, 고조부 김법선(金法宣)은 현성대왕(玄聖大王)으로 각각 추존되었다. 어머니는 계오부인(繼烏夫人) 박씨(朴氏)로, 역시 원성왕 즉위 후 소문태후(昭文太后)로 추존되었다. 왕비는 각간(角干) 김신술(金神述)의 딸이다. 원성왕은 왕비 김씨와의 사이에 김인겸(金仁謙), 김의영(金義英), 김예영(金禮英) 등을 두었다.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이 외에 대룡부인(大龍夫人)과 소룡부인(小龍夫人)까지 총 5명의 자손이 있었다고 한다.

장남인 김인겸은 원성왕이 즉위 직후 왕태자로 삼았으나 791년(원성왕 7)에 사망하면서 혜충(惠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원성왕은 792년(원성왕 8)에 둘째 김의영을 태자로 봉했는데, 역시 2년 만에 사망하여 헌평(憲平)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다음해인 795년(원성왕 11) 정월, 원성왕은 셋째 김예영이 아닌 혜충태자의 아들 김준웅(金俊甬)을 태자로 삼았다. 김준웅은 원성왕 사후 왕위를 계승하여 제39대 소성왕(昭聖王)이 된다. 그리고 소성왕부터 제52대 효공왕(孝恭王)까지 신라의 왕위는 원성왕의 가계집단 내에서 계승하게 된다.

### 3 원성왕의 왕위계승 과정